

# 민주, 법사위원장 양보·한미연합훈련 사고 논란 증폭

### 지도부, 법사위 합의 '일사부재리' 번복 없어...의총서 격론 예고 송영길 "한미훈련 연기 어렵다" 불구 남북대화 위해 연기론 확산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민감한 정국 현안들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내부 조율 등을 통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5일 후반기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추진받아 일사부재리(원칙에)에 해당되는 것이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형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여야 합의 번복 결정을 할 가능성을 거론한 일부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부가 이번 법사위 합의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로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가운데 합의 번복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권주자 일부가 법사위 양보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의총이 소집될 경우 격론이 예상된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론은 법사위 체계지구심

사 작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법사위 개혁 당론이 더 존중될 지, 25일(법사위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 이후 법사위 운영에서 합의 사항이 존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의원총회에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원총회 개최 시점에 대해서 "17일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개최 시기를 논의할 것"이라며 "오는 26일에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도 여당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5일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당내에서는 남북 대화를 위해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송영길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 "북미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통상적인 맥락에서 따져보면, 지금 시간도 촉박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중국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목표인 만큼 일단 한미간 합의의 훈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다르다. 이미 6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남북 대화 재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연기론'을 담은 연방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여러 가지를 고려해(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언급한 것이 연기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여부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민주당 의원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려 "가뜩이나 우리 당이 안보와 한미동맹에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약점만 부각하는 셈이 된다"며 "특히 이번 훈련은 정부가 추진해온 전략권 전환 일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경선검증단 설치 놓고 '이심송심' 논란 가열

### 별도 검증기구 구성 목소리에 지도부, 게임 룰 바꿔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후보 검증단' 설치 문제가 이른바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선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별도 검증기구 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지도부는 경선 도중 '게임의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5일 YTN 라디오에서 검증단 설치 요구와 관련해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지는 것과 비슷하다"며 "당에서 중간에 개입하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강훈식 대선기획단장은 MBC 라디오에서 "당헌당규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은 검증위원회를 통해(공천이) 된 분들"이라며 "그렇게 당선된 분들이 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니 별도의 검증단이 필요없다. 지도부도 이런 뜻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후발 주자들 사이에서는 송 대표가 또다시 이재명 후보에 기울어진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낙연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이심송심'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다수 당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히려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향후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지도부에 말하고 싶다"며 "캠프 차원의 공방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캠프는 검증기구 설치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추미애 후보도 이에 동조하면서 검증단 논란을 고리로 '반명연대'와 '명추연대' 간 전선이 다시금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검증단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처럼 경선레이스 시작 전 자격을 따져보는 것"이라며 "경선 투표와 평가 자체가 후보의 역량과 인성, 정책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대선후보는 왜 검증단이 없냐하면, 의원들을 캠프에 데려가 출대우기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검증단을 만들면 이전투구로 빠져들 수 있다"며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與 본경선, 충청서 스타트...중원표심에 벌써 공들이기

### 9월 4일 대전·충남 시작 순회 경선 후보들 충청권 조직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충청권 표심에 벌써부터 공을 들이고 있다. 대선후보 본경선이 보통 호남에서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충청에서 스타트를 끊기 때문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9월 4일 대전·충남과 이튿날 세종·충북을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지역순회 경선이 치러진다. 9월 12일에는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득표 결과와 처음 공개된다. 이른바 '1차 슈퍼워크'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들도 충청권 조직을 대폭 강

화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청주 지역 5선의 변재일 의원을 영입했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총괄본부장, 정성호 총괄본부장 등 캠프중추인 현역 중진의원들은 지난 3~4일 대전과 충청 지역을 돌았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조직이 보강되고 스킨십이 늘면서 밀바다 민심이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낙연 후보 캠프는 여기구(충남 당진),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홍성국(세종갑) 의원 등 충청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풀뿌리 조직을 다지고 있다. 캠프 인사는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충청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고 있고, 경선 1등도 가능해 보인다"며 "양승조 충남지사의 마음도

다른 주자들보다는 이낙연 후보에 가깝게 서 있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정세균 후보 측은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승래 캠프 대변인을 중심으로 지역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 충청권역에서 선대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총부지사 출마 전망이 제기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립"을 표방 중이지만, 정 전 총리를 측근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도를 서울과 세종을 돌로 나누는 자신의 '양경제(兩京制)' 정책을 강조했다. 추미애·김두관 후보도 각각 충청권 메가시티 육성 비전으로 지역 표심에 구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준석, '安 일본군' 비난에 "정상 아냐...국민 그만 괴롭혀라"

### "尹 당 행사 불참 국민들이 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 와중에 자신을 일본군 전범에 빗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2차 대전 때 일본군 정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예스(Yes)나, 노(No)냐를 질문했다면 상황에 대해 일본 전범을 연상했다는 것은 정상인 범주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답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권 통합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그만 좀 괴롭히고 이제는 (합당에) 답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같이 야권 지지율 1위 하시는 분도 예상보다 일찍(경선) 버스에 타서 앉아 있는데 안 대표를 버스를 가리키며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당이 기획한 대선주자 봉사활동 행사에 불참한 데 대해서 "그전에 잡아둔 일정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캠프에서 '이준석이 사람 오라 가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봉사활동 행사에서 의결권을 1도 행사하지 않았고 조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b>장성 토지 (매매 분양)</b>	<b>상가매매 (상무지구)</b>
<p><b>광주에서 20분(6M도로접)</b>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 200, 500, 1800)</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b>010-6670-9800</b></p>	<p>1) 감정가(시세) <b>9억</b> 매매가 <b>6억 3천</b>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 모던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b>010-6670-9800</b></p>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송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도희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코리아(이하 "갑")와 신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1년 8월 4일 개최된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사업 제3호의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방법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계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6.

"갑" 주식회사 케이에스코리아  
광주광역시 북구 금계로 693층(복동)  
대표이사 김정명

"을" 신광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827  
대표이사 최명순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설지숙(1973.01.09생, 2021년 03월 09일 사망, 최후주소: 광주 남구 서동로 2번길 6, 301호(서동))의 법정상속인인 아래 사람들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광주 가정법원 2021노단33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청구는 2021년 07월 28일 인용되었으므로,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위 망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거나 유증받은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6일

• 한정승인자: 송양기, 송정훈, 송승현  
• 채권신고주소: 경남 김해시 대정로26번안길 25-9, 202호 (관동동)  
• 연락처: 010-3141-2586

**합병공고**

유원회사 유원건설(과)과 주식회사 지광건설산업(을)은 2021. 8. 6. 각 회사의 사원총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이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회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합병방식: "갑"은 "을"을 부속자 흡수합병하고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주권제출공고**

위 합병에 따른 "을" 회사의 출자증권 및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증권과 주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6.

(과) 유원회사 유원건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별산길 27  
대표이사 임근홍

(을) 주식회사 지광건설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58번길 13-(영곡동)  
대표이사 신문수

**산행안내**

8월22일(일)  
▲광주지산악회 8월22일(일) 경북 충북, 괴산, 문경&백두대간 대

야산 정상 비로봉 선유동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누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지산악회 ☎ 010 7794 6920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

<b>북 구</b>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영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b>동 구</b>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b>남 구</b>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b>서 구</b>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b>광산구</b>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